롯데, 여고생 성추행한 포수 지성준 '무기한 출장 정지' 중징계

안방 보강 '장기 플랜' 걷어차버린 지성준

성민규 단장이 야심차게 영입한 카드
허문회 감독 '제3의 포수' 기대에 찬물
사법적 판단 전에 급여도 없는 중징계
롯데, 타 선수들에게도 확고한 메시지

제아무리 치밀하게 설계된 도미노도 조각 하나가 갑작스레 쓰러지면 순식간에 어그러진다. 지성준(26·롯데 자이언츠)이 저지른 일탈이 선수와 팀 모두에게 뼈아픈 이유다. 롯데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선수단에 확실한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롯데는 26일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지성준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25일 새벽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SNS 이용자가 지성준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구단은 즉각 사태 파악에 나섰고, 지성준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롯데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를 신고한 뒤 지성준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지성준

올 시즌을 앞둔 스토브리그에서 지성준은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다. 1군 167경기 출장이 전부인 포수 유망주였지만, 성민규 롯데 단장의 눈에 들어 2대2 트레이드로 이어졌다. 롯데는 2019년 팀 내 최다승 투수였던 장시환을 한화 이글스에 보내며 안방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롯데에 부정적이던 여론은 지성준 영입으로 단숨에 바뀌었다.

하지만 지성준은 올 시즌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허문회 롯데 감독은 "나 같은 반쪽짜리 선수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지성준에게 수비보완을 촉구했다. 개막 엔트리 불발 직후 의욕이 떨어져 공수 모두에서 집중력 잃은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지만, 구단의 동기부여로 마음을 다잡았다. 롯데의 개막전 안방은 김준태와 정보근이 차지했지만, 지성준의 활용도는 충분했다.

팀당 144경기 체제에서 '제3포수' 지성준에게 기회가 올 것은 분명했다. 실제로 정보근이 장염으로 이탈했던 6월 11일부터 사흘간 1군에서 3경기 8타수 2안타의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뒤 2군으로 내려보낸 허 감독 역시 "우리 선수다. 언제든 좋다고 판단되면 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겨우내 롯데가 치밀하게 설계했던 계획도, 지성준과 팀이 얻을 결과도 멈췄다. 지성준의 일탈이 모든 것을 걷어찼다.

롯데의 징계는 강했다. 아직 해당 SNS 이용자가 어떠한 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KBO나 사법기관에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법리적 사실 관계를 떠나 지성준의 논란이 구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분명하다. 팀 내규에 의한 처벌이 가능했는데, 중징계를 내렸다. 훈련을 비롯한 일체의 참가활동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급여도 나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구단은 KBO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던 관행을 깼다. 주축 선수라고 판단할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롯데는 지성준에게 중징계를 내리며 다른 선수들에게도 확고한 메시지를 남겼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ERA 1위 RYU 기억하지?"

ML 개막 기다리는 토론토, 에이스 띄우기

류현진

미국 메이저리그(ML) 개막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올 시즌에 앞서 물밑에서 치열하게 경합했던 스토브리그의 온기는 이미 차갑게 식은 지 오래다. 구단 입장에선 야심 차게 영입한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가 다시 피어오르길 바라고 있다. '괴물' 류현진(33)을 다시금 팬들 앞에 소개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심정이 그렇다.

토론토는 28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 류현진은 지난해 ML 평균자책점(ERA) 1위였다는 사실"이라는 글귀와 함께 류현진이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투구 중인 사진을 게재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류현진에게 4년 총액 8000만 달러(약 929억 원)를 안겨주며 새로운 에이스를 확보했다. 팀 사상 최고액 3위, 투수로는 1위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괴물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있었다. 류현진은 LA 다저스 소속이던 지난해 29경기에서 14승5패, ERA 2.32로 호투하며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까지 올랐다. 맷 부시먼 토론토 불펜코치는 "류현진의 계약은 마크 샤파이로 사장과 로스 앳킨스 단장이 팀에 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한편 ML 개막은 7월 24일 또는 25일로 예정돼있다. 다만 토론토가 ML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아닌 지역(캐나다)을 연고로 삼고 있기에 경기 일정이 애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과 캐나다를 자유로이 오갈 수 없기에 플로리다 구장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익래 기자

KBO 솜방망이 징계가 더 문제…야구연감에 범죄사실 기록하라

지난 주말 프로야구 팬들을 가장 분노케 한 주인공은 롯데 자이언츠 포수 지성준일 것이다. 입에 담기도 민망하게 26세의 성인 프로야구선수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미성년 학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피해를 주장하자, 26일 롯데 구단은 2군 원정에 참가 중이던 지성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무기한 출전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무기한 출전정지는 구단의 자체징계일 뿐이다. 앞으로 KBO와 사법기관의 판단이 남아있다. 지금은 프로야구선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못하고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 경우 선수생활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모든 범죄가 다 나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라 대중 또한 더욱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온적 처벌에 그친 프로야구계는 여론의 질타를 자초하고 공분을 사곤 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 전과 3범이 한국에서 다시 야구를 하겠다고 해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했다. KBO가 외쳐온 '클린 베이스볼' 또한 공허한 메아리처럼 묻혀버렸다.

KBO와 총재에게 큰 기대를 걸진 않지만,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 싶다. 지금부터 강력한 회초리를 든다고 없던 권위가 생기고, 선수들의 도덕성이 갑자기 높아지진 않는다. 다만 프로야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대중의 힘을 믿는 '발상의 전환'을 권한다.

분명 방법은 있다. 그동안 숨겨왔던, 또는 기억 속에 잠긴 모든 범죄 자료를 찾아내 기록으로 남겨 대중이 알리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가 걸려있으니 실명은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범죄가 언제 발생했고, 누적 수치는 얼마인지 공개해 모든 이들이 알게 해주길 바란다. KBO가 총재의 동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열심히 내고 좋은 뉴스를 홍보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시즌 기록을 남기듯 해마다 범죄사실 역시 야구연감 등에 정확하게 게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 자료를 근거로 KBO리그 종사자들의 범죄비율이 일반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해마다 추세는 어떤지 공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범죄비율이 낮아진다면 프로야구계를 칭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높아진다면 앞으로 더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 자료 속에 구단별로 발생한 범죄 숫자와 내용까지 담는다면 팬들이 구단 또는 모기업에 더 도덕성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올바른 사람들이 하는 야구를 보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클린 베이스볼'을 강조해온 총재에게 물어보고 싶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7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방어율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N C	45	31	14	0	0.689	-	1패	0.293	4.71	0.696	293	224	65	28	24
2	키 움	47	29	18	0	0.617	3.0	1승	0.266	4.14	0.696	270	212	55	32	36
3	두 산	46	28	18	0	0.609	3.5	1승	0.299	5.08	0.579	293	262	49	17	31
4	L G	46	26	20	0	0.565	5.5	1승	0.289	4.58	0.481	254	227	39	33	28
5	K I A	44	24	20	0	0.545	6.5	1패	0.275	4.23	0.650	218	203	47	16	31
6	삼 성	47	24	23	0	0.511	8.0	2승	0.262	4.31	0.500	240	227	42	43	33
7	롯 데	44	21	23	0	0.477	9.5	2패	0.267	4.61	0.650	200	212	31	31	19
8	K T	46	20	26	0	0.435	11.5	1승	0.291	5.62	0.500	264	271	53	30	29
9	S K	46	14	32	0	0.304	17.5	1패	0.242	4.72	0.385	177	241	37	24	32
10	한 화	47	12	35	0	0.255	20.0	1패	0.240	5.78	0.261	166	296	27	24	44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
1	이정후	키 움	0.379	47	182	69	7	33	33	3	22	14	1	0.380	1.077
2	페르난데스	두 산	0.379	46	190	72	7	38	35	0	21	13	0	0.314	0.996
3	로하스	K T	0.378	46	185	70	17	40	45	0	15	45	1	0.386	1.153
4	강진성	N C	0.378	41	135	51	9	25	35	4	13	18	1	0.486	1.098
5	손아섭	롯 데	0.343	44	169	58	2	34	25	1	25	17	1	0.333	0.883
6	라모스	L G	0.342	41	146	50	13	21	33	0	20	41	2	0.333	1.072
7	이명기	N C	0.340	43	147	50	1	28	15	4	14	21	1	0.290	0.794
8	김현수	L G	0.337	46	190	64	4	34	29	0	14	17	0	0.436	0.879
9	배정대	K T	0.333	46	177	59	3	25	22	5	15	38	1	0.326	0.889
10	터 커	K I A	0.331	44	169	56	11	31	40	0	21	24	0	0.378	1.020
11	박건우	두 산	0.327	44	165	54	3	37	25	2	19	22	1	0.371	0.863
12	김재호	두 산	0.321	41	140	45	1	22	16	3	18	17	4	0.333	0.789
13	조용호	K T	0.318	43	129	41	0	29	12	4	22	20	0	0.412	0.778
14	최형우	K I A	0.315	43	149	47	8	29	31	0	27	23	0	0.313	0.939
15	김상수	삼 성	0.312	45	154	48	0	28	12	6	28	27	5	0.296	0.796
16	채은성	L G	0.305	40	154	47	5	29	29	0	13	25	0	0.348	0.810
17	나성범	N C	0.302	45	182	55	13	37	41	0	23	59	0	0.320	0.973
18	박동원	키 움	0.302	44	139	42	9	24	30	0	19	24	4	0.324	0.949
19	이대호	롯 데	0.301	44	163	49	7	21	30	0	25	21	0	0.378	0.861
20	유강남	L G	0.299	45	137	41	4	19	31	1	14	28	0	0.436	0.797
21	양의지	N C	0.298	36	121	36	7	23	32	1	15	10	1	0.333	0.937
22	노진혁	N C	0.296	39	125	37	6	22	21	0	14	32	1	0.297	0.863
23	박민우	N C	0.296	45	169	50	2	29	20	5	16	12	1	0.429	0.769
24	서건창	키 움	0.292	45	161	47	4	27	22	11	28	17	1	0.424	0.834
25	전준우	롯 데	0.290	43	183	53	9	31	23	2	11	31	1	0.136	0.838
26	알테어	N C	0.289	45	152	44	11	30	41	8	18	48	0	0.340	0.944
27	박경수	K T	0.289	42	128	37	4	16	22	0	20	35	3	0.270	0.815
28	나지완	K I A	0.288	42	146	42	6	25	25	0	20	34	0	0.308	0.830
29	살라디노	삼 성	0.286	40	119	34	6	25	25	5	25	38	5	0.387	0.911
30	김혜성	키 움	0.285	45	144	41	5	29	21	4	15	32	5	0.353	0.820
31	장성우	K T	0.282	44	131	37	4	12	28	0	11	27	1	0.350	0.745
32	마차도	롯 데	0.281	44	160	45	4	21	29	5	13	25	1	0.289	0.753
33	최주환	두 산	0.280	45	168	47	8	26	33	0	18	20	3	0.375	0.846
34	이천웅	L G	0.279	43	172	48	1	28	18	5	19	23	0	0.273	0.682
35	정수빈	두 산	0.275	43	153	42	1	22	19	2	14	21	1	0.262	0.706
36	이학주	삼 성	0.273	41	128	35	4	21	25	3	17	37	2	0.324	0.785
37	안치홍	롯 데	0.273	42	154	42	2	16	21	8	16	22	4	0.298	0.729
38	정진호	한 화	0.272	45	136	37	0	16	6	6	10	21	0	0.158	0.612
39	이용규	한 화	0.271	41	129	35	1	20	13	6	24	16	2	0.370	0.704
40	김재환	두 산	0.271	45	170	46	11	31	45	2	31	56	0	0.281	0.883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출루율 + 장타율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구창모	N C	1.37	9	59.0	11	9	6	0	0	33	2	65	12	0.161	0.76
2	요키시	키 움	1.42	10	63.1	16	10	7	2	0	44	2	45	12	0.191	0.85
3	스트레일리	롯 데	2.43	10	63.0	18	17	1	2	0	47	3	65	19	0.210	1.03
4	브룩스	K I A	2.62	9	55.0	17	16	3	2	0	50	2	48	13	0.249	1.11
5	루친스키	N C	2.67	9	57.1	18	17	5	1	0	50	6	55	17	0.234	1.15
6	원태인	삼 성	2.96	10	54.2	19	18	4	2	0	53	6	33	22	0.251	1.34
7	문승원	S K	3.23	9	53.0	21	19	2	3	0	48	4	52	14	0.240	1.13
8	플렉센	두 산	3.26	8	47.0	19	17	3	1	0	41	2	43	17	0.240	1.21
9	서폴드	한 화	3.50	10	64.1	31	25	5	4	0	77	3	41	16	0.298	1.37
10	라이트	N C	3.60	9	50.0	20	20	6	2	0	44	5	41	27	0.239	1.34
11	알칸타라	두 산	3.69	10	63.1	27	26	7	1	0	68	7	52	16	0.273	1.25
12	가 뇽	K I A	3.88	9	51.0	26	22	4	3	0	47	1	52	19	0.245	1.22
13	서준원	롯 데	3.88	9	48.2	22	21	3	1	0	50	7	23	18	0.272	1.34
14	배제성	K T	3.91	9	53.0	24	23	3	2	0	55	6	31	24	0.264	1.47
15	핀 토	S K	4.02	10	56.0	35	25	3	4	0	65	1	35	33	0.288	1.66
16	최원태	키 움	4.18	9	51.2	27	24	3	3	0	56	6	35	12	0.272	1.26
17	한현희	키 움	4.38	9	51.1	27	25	3	2	0	61	2	38	19	0.298	1.42
18	윌 슨	L G	4.47	9	52.1	27	26	3	3	0	51	4	37	19	0.255	1.32
19	데스파이네	K T	4.50	10	60.0	32	30	3	4	0	65	5	44	20	0.278	1.35
20	뷰캐넌	삼 성	4.53	9	55.2	29	28	5	3	0	59	8	37	19	0.272	1.31
21	유희관	두 산	4.66	9	46.1	28	24	5	1	0	62	5	16	18	0.323	1.71
22	양현종	K I A	4.67	10	54.0	30	28	5	4	0	53	6	41	17	0.249	1.28
23	차우찬	L G	4.98	9	47.0	26	26	4	3	0	47	6	44	23	0.260	1.47
24	켈 리	L G	5.12	9	51.0	31	29	3	3	0	55	5	37	17	0.276	1.37
25	이민우	K I A	5.12	8	45.2	30	26	3	2	0	44	3	30	18	0.251	1.29

※ 피타율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 ÷ 이닝

※ '프로야구 기록실'이 신문제작 시간관계로 일부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퓨처스리그 〈28일〉

•경기결과

	팀	1	2	3	4	5	6	7	8	9	R	
함평	삼성	1	0	0	0	0	0	1	0	0	2	2시간46분
	KIA	1	2	1	2	0	0	0	1	X	7	
	승 박진태		패 박용민			홈 장영석(4회 2점 KIA)						
	팀	1	2	3	4	5	6	7	8	9	R	
이천	두산	1	2	0	0	0	0	1	0	0	4	2시간51분
	LG	0	0	0	0	0	2	5	0	X	7	
	승 백남원		세 조용근			패 이형범						
	팀	1	2	3	4	5	6	7	8	9	R	
고양	롯데	0	0	1	1	1	1	2	1	0	7	3시간19분
	고양	0	0	0	0	0	0	1	1	1	3	
	승 김현종		패 김동혁			홈 신용수(5회 1점 롯데) 이명기(8회 1점 고양)						
	팀	1	2	3	4	5	6	7	8	9	R	
마산	KT	0	3	0	0	0	0	0	5	2	10	3시간17분
	NC	4	0	0	0	0	1	0	0	0	5	
	승 김민		패 강동연									
	팀	1	2	3	4	5	6	7	8	9	R	
문경	한화	0	0	2	1	1	0	2	0	0	6	2시간53분
	상무	1	0	2	0	0	0	3	0	0	6	

프로축구 〈27일〉

•하나원큐 K리그1 2020 〈9R〉 경기결과

광주W 광주 0 (0-1, 0-1) 2 포항 0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6	7	슈팅	3	6
0	0	오프사이드	1	1
1	8	파울	6	10
4	2	코너킥	1	1

▲골=팔라시오스(전33분), 송민규(후42분, 도움: 이광혁, 이상 포항) ▲경고=윌리안, 임민혁, 김창수(이상 광주), 최영준, 오범석(이상 포항)

서울W 서울 1 (0-0, 1-0) 0 인천 0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3	9	슈팅	1	3
1	0	오프사이드	3	0
8	9	파울	9	6
2	3	코너킥	2	1

▲골=윤주태(후17분, 서울) ▲경고=알리바예프, 한승규, 윤영선(이상 서울), 송시우(인천)

부산구덕 부산 1 (0-1, 1-0) 1 성남 0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4	10	슈팅	1	0
0	1	오프사이드	0	1
5	9	파울	8	4
3	6	코너킥	1	0

▲골=호물로(후23분, 도움: 이규성, 부산), 박준강(전8분, 자책골, 부산) ▲경고=강민수(부산), 김동현(성남) ▲퇴장=최지묵, 이창용(이상 성남)

DGB대구은행파크 대구 2 (0-0, 2-1) 1 강원 0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3	6	슈팅	5	8
0	1	오프사이드	0	0
7	8	파울	8	4
1	3	코너킥	1	7

▲골=에드가(후9분, 도움: 츠바사), 세징야(후22분, 이상 대구), 고무열(후47분, 강원) ▲경고=세징야, 김동진(이상 대구) ▲퇴장=조지훈(강원)

해외축구 〈28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리버풀	31	86	28	1	2
2	맨체스터시티	31	63	20	8	3
3	레스터시티	31	55	16	8	7
4	첼시	31	54	16	9	6
5	울버햄튼	32	52	13	6	13
6	맨체스터Utd.	31	49	13	8	10
7	토트넘	31	45	12	10	9
8	셰필드Utd.	31	44	11	9	11
9	아스널	31	43	10	8	13
10	크리스탈팰리스	31	42	11	11	9
11	번리	31	42	12	13	6
12	에버턴	31	41	11	12	8
13	뉴캐슬	31	39	10	12	9
14	사우스햄튼	31	37	11	16	4
15	브라이튼	31	33	7	12	12
16	왓포드	31	28	6	15	10
17	웨스트햄	31	27	7	18	6
18	본머스	31	27	7	18	6
19	애스턴빌라	32	27	7	19	6
20	노리치시티	31	21	5	20	6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바디	레스터시티	19
②	살라	리버풀	17
②	아우바메양	아스널	17
④	아게로	맨체스터시티	16
④	잉스	사우스햄튼	16
⑥	마네	리버풀	15
⑥	히메네스	울버햄튼	15
⑧	레쉬포드	맨체스터Utd.	14
⑧	마샬	맨체스터Utd.	14
⑩	아브라함	첼시	13
⑩	칼버트-르윈	에버턴	13
⑫	스털링	맨체스터시티	12
⑫	케인	토트넘	12
⑭	우드	번리	11
⑭	푸키	노리치시티	11
⑯	데 브루인	맨체스터시티	10
⑯	제수스	맨체스터시티	10
⑯	히샬리송	에버턴	10
⑲	마레즈	맨체스터시티	9
⑲	모페	브라이튼	9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울버햄튼 1 - 0 애스턴빌라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라이프치히	2 - 1	아우크스부르크	
호펜하임	4 - 0	도르트문트	
우니온베를린	3 - 0	뒤셀도르프	
프라이부르크	4 - 0	샬케04	
바이에른뮌헨	4 - 0	볼프스부르크	
뮌헨글라트바흐	2 - 1	헤르타베를린	
프랑크푸르트	3 - 2	파더보른07	
레버쿠젠	1 - 0	마인츠05	
브레멘	6 - 1	쾰른	

아마추어 경기결과

토요일 경기결과 〈27일〉

야구 ●2020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권역별 승인경기장)
•서울권A=성남고 15-8 세현고〈7회 콜드〉, 신일고 10-3 청원고〈7회 콜드〉, 휘문고 8-4 우신고 •서울권B=서울디자인고 4-1 경기고, 배재고 9-6 성지고, 선린인터넷고 7-1 컨벤션고 •경상권=도개고 5-3 김해고, 경주고 3-2 대구고, 경북고 2-1 글로벌선진고 •부산,제주=개성고 9-5 경남고, 부산정보고 9-0 제주고〈7회 콜드〉, 부산고 5-4 부산공고 •대전,충청=한국K-POP 5-3 세광고, 북일고 14-1 청주고〈7회 콜드〉, 공주고 3-1 대전고 •전라권=진흥고 7-6 나주광남고〈연장10회〉, 동성고 3-1 군산상고, 인상고 3-2 화순고 •경기,강원=강원고 3-2 설악고, 청담고 7-0 원주고〈8회 콜드〉, 강릉고 10-9 백송고〈연장10회〉

배구 ●2020 춘계 전국 남여중고배구대회(단양군 국민체육센터) •남자 고등부 A조=광주전자공고 2-0 순천제일고 •남자 고등부 B조=천안고 2-1 부산동성고 •남자 고등부 C조=문일고 2-0 인하사대부고 •남자 고등부 D조=제천산고 2-0 송림고, 수성고 2-0 동해광희고 •남자 고등부 E조=남성고 2-1 경북체고, 인창고 2-1 진주동명고 •여자 고등부 B조=일신여상 3-2 한봄고 •여자 고등부 C조=청수고 3-0 광주체고 •남자 중등부 A조=팔마중 2-0 문일중 •남자 중등부 B조=송산중 2-0 하동중, 남성중 2-0 각리중 •남자 중등부 C조=금호중 2-0 제천중 •남자 중등부 D조=현일중 2-0 태릉중 •여자 중등부 B조=금천중 2-1 봉서중 •여자 중등부 C조=제천여중 2-0 세화여중

일요일 경기결과 〈28일〉

야구 ●2020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서울권A=청원고 8-4 배명고, 성남고 13-6 우신고〈7회콜드〉, 중앙고 3-2 세현고 •서울권B=장충고 11-4 배재고〈8회콜드〉, 선린인터넷고 3-2 서울디자인고 •경상권=마산고 10-8 포항제철고, 용마고 8-2 영문고 •대전,충청=청주고 10-0 전주고〈7회콜드〉, 세광고 7-0 공주고〈7회콜드〉, 한국K-POP 3-0 대전제일고 •전라권=광주제일고 12-4 군산상고〈7회콜드〉, 인상고 9-5 나주광남고 •경기,강원=백송고 7-3 설악고, 강릉고 9-4 강원고

배구 ●2020 춘계 전국 남여중고배구대회
•남자 고등부 10강=영생고 3-1 제천산업고, 문일고 3-2 경북사대부설고 •여자 고등부=남성여고 3-1 제천여고, 광주체육고 3-0 강릉여고 •남자 중등부=하동중 2-0 각리중, 함안중 2-0 제천중, 금호중 2-1 언양중 •여자 중등부=대구일중 2-0 일신여중, 제천여중 2-0 홍천군체육회

스쿼시 ●제 23회 금곡배 전국 초중고 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단식=① 이민우(충북상업정보고), ② 유정민(동일미래과학고), ③ 강우석(언양고), ③ 박승민(충북상업정보고) •여자 고등부 단식=① 이소진(충북상업정보고), ② 신유진(백영고), ③ 김다미(경기영상과학고), ③ 어수빈(다정고) •남자 고등부 복식=① 이민우,박승민(충북상업정보고), ② 강우석,박민준(언양고), ③ 유민석,허원룡(인천대건고) •남자 고등부 단체=① 충북상업정보고, ② 와룡고, ③ 동일미래과학고

경기예고

아마추어 경기예고 〈29일〉

배구 ●2020 춘계 전국 남여중고배구대회(단양군 국민체육센터,오전9시)

테니스 ●제 55회 전국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전라북도 순창공설운동장)

골프 ●2020 KLPGA 호반 챔피언스 클래식 4차전(군산,오전6시30분)

육상 ●제 49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예천)